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교회 개척 34주년을 맞아 만민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전 세계 위에 뛰어난 제단으로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내보일 때마다 구원과 응답, 치료와 축복은 물론 모든 역경을 영광으로 바꿔 주셨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개척 때 치료받은 조희희 목사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이스라엘 선교 시 러시아어 통역으로 함께했던 손영락 집사 간증.

세계 만민을 깨우는 제단

가정에서, 또 해외 선교 시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이달천 전도사와 아프리카 성결 교단의 부흥 소식을 전하는 정명호 목사.

만민뉴스

제748호 2016년 7월 24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 개척 34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



어느덧 우리 교회가 개척 34주년을 맞았다. 1982년 7월 25일 어린아이를 포함한 13명의 성도가 개척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민'(萬民)이라는 교회 이름을 주셨기에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천하 만민을 구원으로 이끄는 교회가 되고자 힘써 왔다(사진 1).

개척 4년 만에 등록교인 3천 명이 넘는 놀라운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생명력 있는 말씀과 불같은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하나님 권능의 역사에 있었다.

7년의 병고 끝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기에 오직 말씀과 기도, 전무하며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쌓은 결과, 개척 때부터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1991년 7월, 우리 교회는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 총회를 형성하고, 이후 '92 세계성령화대성회' 공동대회장,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희년대회' 등 각종 교계 행사에서 일익을 감당함으로 민족복음화에 힘쓰는 한편 세계 선교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사진 2, 6, 9). 그 뒤 교회적인 연단들을 오직 선으로 통과하며 성도들은 더욱 알곡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축복은 더해져 전 세계에 알려졌다.

제2도약기를 맞아 2000년 CNN에 보도된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사진 8)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에서 개

최된 해외 성회 시 강사로 초청된 이재록 목사는 폭발적인 권능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한 것이다(사진 3, 4, 5, 7).

2010년 말부터는 마지막 때를 이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급속한 영의 흐름이 조성되어 성도들이 이재록 목사의 사랑과 희생에 힘입어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히 10:22)을 이뤄감으로 본격적인 제3도약기를 맞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글로벌 초대형 교회로 성장해 전 세계 1만여 지·협력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있으며,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방송(www.gcntv.org)과 61개 언어로 발간된 이재록 목사의 신앙서적, MIS(만민국제신학교)

와 WCDN(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등을 통해 세계 선교를 창대히 펼쳐가고 있다(사진 10, 11, 12, 13).

또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과 무안단물(출 15:25), ARS(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 등으로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이 치료와 응답,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앞으로도 죄악으로 관영한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힘차게 이뤄갈 것이다.

한편, 7월 24일(주일) 오후 3시 개척 34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 공연 시에는 신동초 목사의 '기뻐하시는 제단'(사 60:1~3) 설교 후 솔리스트, 예능팀, 연합찬양팀이 출연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

치료받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앓은뱅이가 걷고 뛰었지요. 이후 권능의 역사는 매년 더해졌고, 하나님께서는 천기도 조절해 주시고, 별의 이동과 잡자리, 각종 무지개 등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끊임없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런 권능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은 쑥쑥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 보배 중의 보배인 믿음이란?

첫째,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24절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침받기 원하는 아버지가 나오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고백했지요.

이때 “내가 믿나이다” 할 때의 믿음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 때의 믿음은 서로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아들을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서 “믿나이다” 고백했지만, 이는 온전히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아닌 지식적인 믿음이었지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 때,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할 때, 그리고 공의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서 “주여 믿습니다.” 한다면 이는 거짓말입니다(요일 1:6).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을 지켜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약 2:17) 어떠한 역사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선하신 지혜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 그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아들이 죽는다 해도 능히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하셨던 약속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오직 순종과 신뢰의 역사였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섰지요. 구제와 선교를 주관하시면 그대로 했습니다. 재정이 빠듯해도 주관하시는 대로 주의 종과 일꾼을 양성했지요. 핍박이 올 줄 알면서도 영의 세계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지요.

셋째,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해도 끝까지 변개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막 11:24 ; 약 1:6~7).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사람이 원하는 응답의 때가 다를 수 있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이루십니다.

개혁 때부터 알려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변함없이 믿고 날마다 기도했지만 그 길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방이 옥여싸인 것 같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오직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께만 맡기니, 시간이 지나자 이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습니다.

오중복음을 토대로 교단을 창설하고 교계에서 두루 인정받게 되었으며 해외 성회와 세미나도 인도하기 시작했지요.

1993년에는 개혁 10여 년 만에 세계 50대 교회로 선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큰 시련이 왔습니다. 주의 종과 일꾼들 중 몇 사람이 오랫동안 쌓인 자신들의 불의함을 숨길 수 없게 되자 무리를 지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짓 소문을 내어 교회를 비방하고 교계와 언론, 방송사에까지 유포했지요. 그런데 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이것이 재앙이나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연단이라고 하셨지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매주 단에서 담대하게 축복과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세 차례 시험이 지나고 2000년이 되자 무안만민교회에서는 짜고 쓴 바닷물만 나오던 샘에서 단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창조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성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해외 연합대성회가 열리기 시작했지요. 많은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개종하며 방송을 통해 치료받은 간증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2007년부터는 이스라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지요. 이 외에도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 WCDN과 만민국제신학교 MIS가 조직되었고, GCN방송을 통해 방송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문서선교도 활발해졌습니다. 오대양 육대주 구석구석까지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였고 범사에 형통함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지만 앞으로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더 급속히 변화의 물결을 타는 것은 물론, 교계가 이 제단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 되어 불 일듯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 모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만민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셨고, 믿음을 내보일 때마다 구원과 응답, 치료와 축복은 물론, 모든 역경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로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1. 보배 중의 보배인 믿음의 위력

1982년 7월 25일, 교회를 개척할 때 성전은 10여 평에 불과했고 아이들을 포함해서 13명의 성도로 시작했습니다. 개혁자금이라고는 겨우 7천 원뿐이었지만 믿음으로 술한 기도와 금식을 쌓아가니 교세도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했지요.

개혁한 지 77일 만에 170명이 넘는 인원이 창립 예배를 드렸고, 이후로 만 5년이 채 안 돼서 등록교인이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틈도 없이 더 큰 건물로 여러 차례 옮겨야 했지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을 보장하는 권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하나님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십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혁희 목사
(1세대 대교구장)

가을, 금요일아침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달고 오묘한 설교 말씀을 들으며 감동의 눈물이 흘렀고, 살아 있는 교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 류머티즘성 관절염까지 치료받으니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당시 이재록 전도사님의 기도를 통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 수시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10평 남짓한 성전(신대방동 제1성전, 사진)에는 늘 찬양과 기도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모여든 중풍, 뇌출혈, 소아마비 등 각종 질병과 연약함에서부터 귀신들린 사람까지 치료받아 매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전 안에는 성도들로 가득 차 운신하기 어려웠고, 계단에도 신문지나 스티로폼을 깔고 앉아 예배를 드렸지요. 특히 금요일아침예배 열기는 대단해서 1부 예배가 마치면 청년들이 밀

결례를 들고 천장에 맺힌 수증기를 닦아내기 일쑤였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처럼 늘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며 구제하시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시며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가족이든 성도든 동일하게 대하시는 이재록 전도사님의 모습에서 ‘아, 목회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며 마음에 새기곤 하였습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주의 종들에게는 숙식, 학비 일체를 지원해 주시며 참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셨지요. “주의 종은 욕심,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공급받아야 하며, 권능을 받으려면 먼저 성결한 마음을 이뤄야 한다.”고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종이라도 끝까지 믿어 주시는 사랑으로 오늘날의 저희가 있는 것이지요(사진 왼쪽부터 주현권, 조혁희, 조대희, 차전환, 안성현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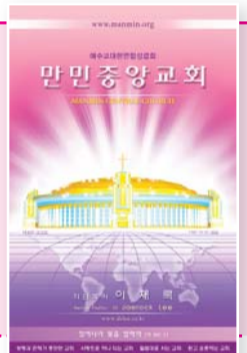


개척 때 말씀하신 그대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 세계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가 이뤄지고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십니다!’는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전 세계 만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의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주보 표지의 대성전 조감도 》

개척 당시부터 하나님께서는 대성전 건축이라는 꿈과 비전을 주셨다. 그리고 1982년 9월, 17명의 성도들에게 앞으로 건축하게 될 대성전을 환상으로 보여 주셨다. 어느 성도는 지붕을, 어느 성도는 내부를, 어느 성도는 뒷면을, 어느 성도는 96개의 아름다운 대리석 기둥을 보았다. 천장 중앙은 십자가 모양으로 설계되어 지붕이 열리고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단은 중앙에서 천천히 회전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마무리하시기까지 모든 눈물과 희생, 인내의 열매로 얻으신 참 자녀들을 통해 대성전을 건축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성결한 마음의 성전을 이뤄야 대성전 건축과 전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기에 교회 개척 이후 지금까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스라엘 선교 사역, 사랑과 권능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손영락 집사
(2세대 15교구)

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 복음의 회귀가 이루어질 것을 알려 주셨지요.

2007년 7월 25일, 교회 개척 기념일에 하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3년간 전 지역을 다니시며 성결의 복음을 전파하고 따르는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마무리하는 시점인 2009년 9월에는 수도 예루살렘의 심장부에서 대형성회(아래 사진)를 개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셨고 수많은 권능의 역사로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물론 이 성회는 방송을 통해 전 세계 220여 개국에 전파되었지요. 감사하게도 저는 이 사역에 러시아어 통역자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는 1992년, 러시아가 개방된 지 얼마 안 되어 모든 것이 불안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유학을 떠났습니다. 21살 어린 나이에 언어, 음식, 모든 환경이 낯설고 외로운 생활이었지만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오직 목자를 도와 세계를 이루는 일꾼이 되고 싶다는 열망과 비전 때문이었지요. 러시아에서 6년간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일꾼으로서 해외 러시아어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2007년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선교가 시작되면서 러시아어권 유대인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연결되었고, 점차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대되어 갔지요.

결코 쉽지 않은 이스라엘 선교를 당회장님께서 오직 믿음과 사랑, 권능으로 이뤄가셨습니다. 한번은 목회자 세미나 시 당회장님께서 “저는 진정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실되고 애절한지 그 마음이 느껴져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통역하였지요. 이스라엘 목회자들도 그 사랑을 느끼며 흐느껴 울었고, 당회장님을 이스라엘에 보내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연신 고백하였습니다.

이렇듯 목자의 사랑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에는 복음의 열매가 맺혀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목회자협의회, 왼쪽 사진)은 페스티벌, 손수건 집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은 물론 세계를 다니며 만민을 알리고 있지요. 만민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의 수많은 교회가 만민과 함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명호 목사 (예수교아프리카연합성결회 총회장/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아프리카 54개국에서도 수많은 교회와 교단이 만민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성령의 감동 속에 풀어 받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로 알려 주는 성결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며, 그 말씀을 확증하는 권능의 역사를 직접 목도하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제단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1월 29일,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예배에 콩고민주공화국 베사이다교회 교단 총회장이며 키부주목회자협회 회장, 고마대학교 교수이신 까부뚜 목사님이 참석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의 사역에 대해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민의 가족이 되어 고마 베사이다 만민국제신학교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를 초청하여 2016년 6월, 고마 도시 목회자 세미나 및 집회를 인도하였는데 ‘창조의 섭리와 인간 경작의 섭리’ 등을 전할 때 큰 회개의 역사가 따랐고, 150여 명의 목사님들이 베사이다 만민국제신학교 운영에 동의하였지요.

그 다음날은 놀랍게도 베사이다 교단 전체가 만민 지교회로 가입하였으며, 성도들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베사이다 교단은 수백 개 교회가 소속된 교단으로 초·중·대학교까지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고마를 중심으로 한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사역에 큰 부흥이 기대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종들을 예비하시고 만민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산 증인입니다!”

이달천 전도사 (2대대 10교구장)



1985년 10월, 친구의 전도로 첫 예배를 드린 후 3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끝이 없는 기사와 표적,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난 수많은 영혼을 보았으며, 저 역시 약한 기를 타고나 의료보험증이 너털너털해질 정도로 병원과 약국을 전전했으나 33세에 만민의 양 떼가 되어 64세가 된 지금까지 약한 번 먹지 않고 건강하게 22년째 주의 종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중증폐결핵에 걸려 세상 의학으로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둘째 딸 한주경 찬양선교사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

님 사랑의 간구로 치료받음은 물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얼굴 전체가 진물로 뒤덮였던 외손주(채윤형, 6세)도 치료받았으며, 자부의 선천적 습관성 유산으로 태어나기 어려웠던 손녀(한윤선, 6세)도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건강하게 태어나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지요.

무엇보다 저는 수많은 부흥성회와 해외 성회 시, 당회장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동의 순간마다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님 섭리 가운데 폭우 속에 펼쳐진 ‘인도 연합대성회’(사진)를 추억하면 전율이 온몸을 감싸옵니다.

연인원 300만 명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타밀라두 주 마리나 해변, 모래밭을 가득 메운 영혼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 눈동자들, 비바람에 뿔뿔히 날려져 무섭게 흔들리던 나무들...

그 속에서 “이만한 비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조용하지만 권세 있는 당회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중은 세찬 빗줄기를 맞으면서도 요동하지 않고 설교에 숨죽여 집중하고 있었지요.

당회장님께서 온몸으로 비를 맞으시며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에 대해 외치셨습니다. 성회 직전 강제개종금지령이 내려져 주최 측에서는 주님

에 대해 증거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으나 더욱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당회장님께서 설교 후,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환자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곳곳에서 약한 영의 세력에서 놓임받은 비명소리가 들렸고, 각색 질병을 치료받은 사람들이 간증하겠다고 끝도 없이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당회장님께서 성회를 인도하시는 나라마다 무수히 나타났으며 그곳이 영육 간에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보았지요. 만민의 사역과 함께하시며 권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자매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805-3898, 010-4182-419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를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청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8-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안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